

The **20**th  
2003-2022

# 거룩한 재헌신, Holy Rededication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 제20차 봄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 특새 파노라마



#### 2003 제1차 40일 특별새벽부흥회

하나님, 믿음의 전성기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진자리, 마른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 2019 헌당감사 제17차 특별새벽부흥회

이 새벽, 먼저 불을 켜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났듯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모두가 살아나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에 드리워진 어둠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 대표자 특새 기대

정명기 장로

기도는 영국과 미국이 세속주의의 거센 조류에서도 복음주의를 버티게 한 원동력입니다. 한국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킨 2003년 첫 특새가 이제 제20차 글로벌 특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새가 한국교회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병호 집사(남순장장)

이번 20차 특새를 통하여서 사랑의교회 모든 영가족들과 함께 나눌 그러한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아빠 아버지와 내 주 예수님과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한 주간 내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신영화 권사(여직장순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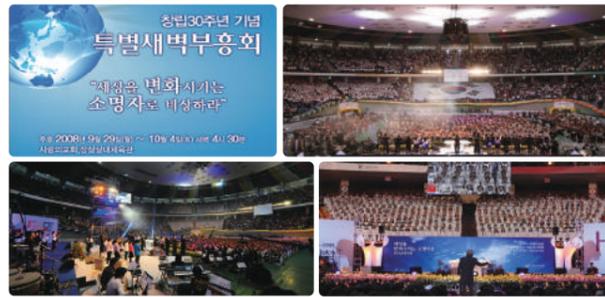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차 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대각성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박수희 권사(여순장장)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글로벌 특새'라는 새 길을 만들어 주사, 안아주심의 본당이 세계적인 은혜의 진원지로 쓰임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새를 통해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먹고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허유민 자매(청년부, 1국, 88도래)

별 보며 일어나고 졸린 눈을 비비며 기도할 때 새로운 마음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벅달같이 굳어 있는 마음을 녹여주실, 부정함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 2008 사랑의교회 30주년 제6차 특별새벽부흥회

사랑의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공동체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사랑의교회 모든 성도가 비상하게 하옵소서.



#### 2020 제18차 글로벌 특별새벽부흥회

특새가 한국교회의 영적자산을 세계교회와 함께 나누는 영적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으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와 함께 하는 말씀과 부흥의 현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14 제11차 입당 특별새벽부흥회

우리 인생에는 수렁과 깊은 웅덩이 같이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우리 영성의 가장 강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 2022 거룩한 재헌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거룩한 재헌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를 소망할 때 안아주심의 본당은 생명의 떡, 희락의 강수가 가득한 잔치의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영혼의 심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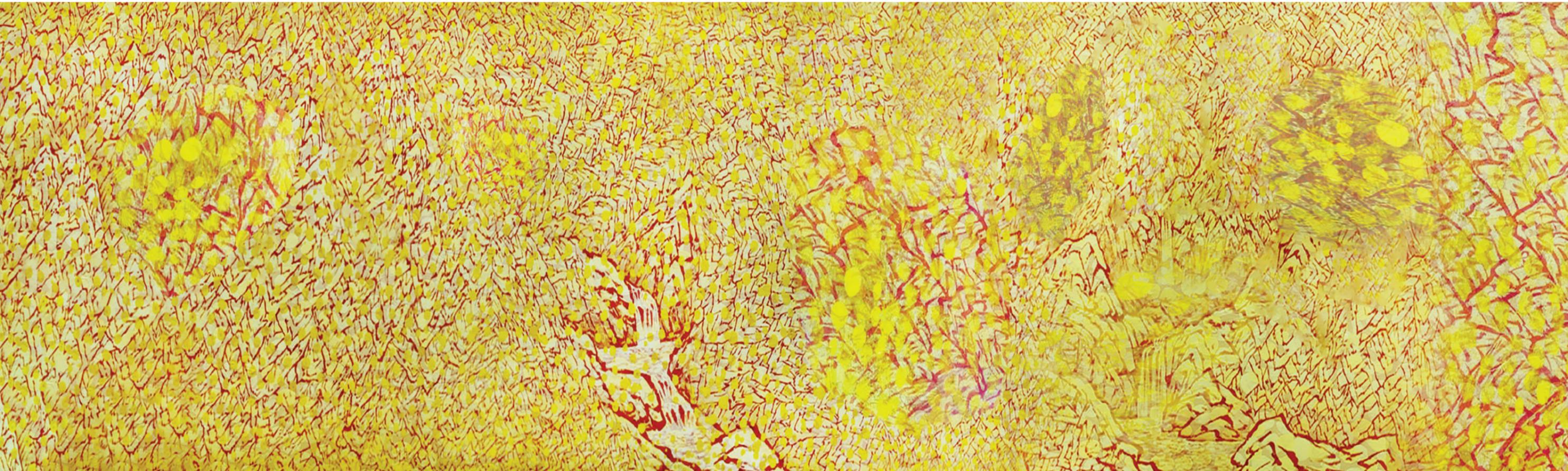
사진제공: 뉴스네트워크실

### 알림 20th

1. 오늘의 기도 주제는 '사랑의교회가 스무살의 젊은 영성으로 꿈꾸게 하옵소서'입니다.
2. 금일 강사는 마이클 리브스 목사(유니온 신학교 총장),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원로)이며, 내일 강사는 조쉬 맥도웰 목사(조쉬 맥도웰 미니스트리 대표)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입니다.
3. 값진 보화보다 귀한 은혜를 특새 <은혜 게시판>에 보관함으로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 "부활은혜 기억하여, 부흥역사 기록하자"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revival.sarang.org/index.asp> 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와 묵상의 길

홀로 고요한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하며 걷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목사 오정현

### Path of Prayer and Meditation

May this path serve as a way to spend your time for praying and meditation in solitude.  
Rev. Jung-hyun Oh

### 작품 설명/About the art peace

요한복음 3장 8절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의 구절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가 봄날 바람에 날려가는 송화가루를 보며 생명의 근원과 창조의 신비를 노래한 작품이다.

Inspired by the word in the gospel of John 3:8,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the artist gazes at the flying pine flower pollen in the air, singing the mystery of the origin and creation of life.

명제 : 바람이 임의로 불매, - 송화분분

작가 : 김병중

규격 : 90 x 5520 cm

재료 : 자작나무에 방해말석채와 혼합재료

기간 : 주후 2020년 2월 ~ 2022년 4월

Title :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Artist : Kim, Byung-jong

Size : 90 x 5520 cm

Material : Decapoda Crustacean Powder on Birch Tree

Period of Creation : February ~ April in the 2020th Year of our Lord

### 그곳은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다

나와 <생명 동행 2인전>을 열었던 김병중이 지금까지 생명 밖에서 생명을 노래했다면 <송화분분>에서는 작가가 생명의 바다에 뛰어들어 스스로 흘러가는 송화가루가 되고자 했다. 그는 바람을 그리려 하고 시간을 붙잡으려 한다. 그의 눈은 바람이 불어 오고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응시한다. 그곳은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여령

The artist attempts to paint the wind as he gazes the direction where the wind blows. Kim, whom I did the ‘Life and Companion’ exhibit with, used to sing his songs outside of the life. But in this pine flower pollen work, he desires to be the pine flower pollen himself, willing to jump into the ocean of life and blow wherever the wind pleases. He attempts to paint the wind and grab the time. His eyes are on the beginning point where the wind blows from and when the time started. It is where the creation took place.

Lee, O-Young